

오영수의 해방기 시에서 '고향'과 '향수'의 의미 - '옛이야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

정 용 호*

차 례

- | | |
|---------------------------------------|-------------------------|
| 1. 들머리 | 3. '여성' 인물에게 전하는 '옛이야기' |
| 2. '실향'과 '귀환'이라는 구체적
경험과 '향수'의 관련성 | 와 현실 인식 양상 |
| | 4. 마무리 |

국문초록

본고는 오영수의 해방기 시 작품에 관한 선행 연구를 수용하면서, 그 속에 나타난 '고향'과 '향수'가 당대 현실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던 부자유와 '가난'의 문제는 오영수가 경남공립고등여학교에 재직하던 시기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그의 시 창작에도 영향을 주었다.

먼저 오영수는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경험에서부터 '향수'의 감정을 길어냈다. 그의 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지명과 풍경들은 그의 유년 시절 경험과 맞닿아 있는 것은 물론, 해방기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가난'의 흔적이었다. 오영수는

* 울산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 객원교수

이러한 모습들을 시적 질료로 사용하면서도 ‘향수’를 참고 견디며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오영수는 오누이를 모티프로 삼은 시 작품에서 ‘슬픈 이야기’와 ‘옛 이야기’로 표현되는 과거를 긍정하고 있다. 이는 졸업하는 ‘여학생’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작품에서 ‘옛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다. 오영수가 이처럼 ‘옛이야기’와 그에 담긴 기억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낙동강’이라는 존재의 긍정과도 맞닿아 있다. ‘태고’를 향해 열린 공간으로서 ‘숲’도 현재를 관통하는 과거의 가치를 긍정하는 오영수의 인식 양상을 보여준다.

오영수의 시에 나타난 ‘향수’를 견디며 현재를 수궁하라는 메시지와 ‘슬픈 이야기’로서 ‘옛이야기’를 기억하자는 모습에는 전근대적 원형적 세계를 향한 긍정과 이야기(설화)를 동반한 서사의 전개와 같은 오영수 소설의 특성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제어: 오영수, 시, 해방기, 고향, 향수, 옛이야기

1. 들머리

오영수에 관한 논의는 그의 소설을 넘어 시 창작 경력과 『현대문학』 편집장으로서의 정체성에 관련한 연구로 확장되었다.¹⁾ 특히, 오영수의 시 작품에 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 동요에 관한 논의²⁾와 해방기 시 작품 발굴과 그에 관한 일차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졌다.³⁾ 이들 논의는 당

1) 나보령, 「편집자 오영수-『현대문학』 편집장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8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3, 221-250쪽.

2) 김정호·이순욱, 「근대 어린이문학과 신고송의 동요」, 『음악과 현실』 제60호, 민족음악학회, 2020, 119-158쪽.

대 문학 장에서 오영수 시가 놓인 위치를 파악하고 소설가로 전향하기 이전의 습작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를테면 박태일은 오영수가 해방기에 창작한 작품의 전모를 밝히면서 오영수가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체화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당대와 이전 시대의 시문학 전통을 모방하는 한계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⁴⁾ 이와 같은 평가는 일견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오영수의 시 작품에 접근할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정용호는 오영수의 동요 작품이 습작으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동요 작품에 나름의 현실비판의식이 드러나고 있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⁵⁾ 나보령의 논의에서 밝힌 것처럼, 오영수의 동요(동시) 가운데 비판적인 계급의식이 읽히는 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영수 개인적인 가난과 불우에 더해 '언양소년단'이 지닌 사상적 분위기와 신고송, 서덕출의 작품과 같은 현실주의적 아동문학 작품의 경향이 투영된 결과일 수 있다.⁶⁾ 본고는 오영수의 시에 나타난 현실비판적 성격을 긍정하면서, 나보령의 논의에서 언급한 '오영수 개인적인 가난과 불우'에도 방점을 찍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람이 그러했겠으나, 오영수 역시 자신의 삶에서 '고향'과 타지를 수없이 오갔다. 1931년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나니와중학 속성과를 다녔고 1935년 니혼대학 전문부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각기병을 앓게 되어 1936년에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이듬해인 1937

3) 이순욱, 「광복기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창작 기반」, 『석당논총』 5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97-128쪽; 박태일, 「오영수의 광복기 미발굴 시 연구」, 『가라문화』 제26집, 경남대학교박물관 가라문화연구소, 2014, 29-62쪽; 문영, 『변방의 수사학』, 작가시대, 2018, 11-23쪽.

4) 박태일, 앞의 글, 41쪽.

5) 정용호, 「오영수의 동요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 양상과 의미-『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수록 동요 작품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34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4, 151-183쪽.

6) 나보령, 앞의 글, 227쪽.

년에 다시 일본 도쿄 국민예술원에 입학하여 문학과 미술 등을 배웠고 2년 뒤인 1939년에 졸업하였다. 1939년 도쿄 국민예술원을 졸업한 뒤 귀국한 오영수는 고향인 언양에서 청년회관을 열어 역사와 한글, 연극과 음악을 가르쳤으나 일제의 언어 말살 정책으로 청년회관이 폐쇄되고 ‘불령선인’으로 의심받아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1942년 만주 신경으로 떠나 1년여간 만주에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1943년에 돌아와 부산의 동래군 일광면으로 이사하여 일광면사무소의 서기로 일하였다. 1945년 12월 3일에 경남공립고등학교에 미술 교사로 부임하여 동료 교사였던 박영한, 김수돈 등과 함께 교우지 『학교소식』에 여러 편의 시를 발표하였다.⁷⁾ 본고가 오영수의 해적이어서 주목하는 것은 그가 해방기에 창작한 시 가운데 ‘고향’과 ‘여성’을 시적 대상으로 삼은 작품이 많다는 점이다. 이론의 여지가 있겠으나 당시 ‘고향’과 ‘여성’이 지닌 상징성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이념과 체제 갈등에 나타난 이분법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오영수의 소설 세계가 지향했다고 판단하는 ‘서정적 세계’의 ‘원형’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⁸⁾

실제로 ‘여성’이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는 ‘원시성’ 또는 ‘향토성’이라는 그의 문학적 특징들을 해명하려는 목적을 보인다. 예컨대 오영수 소설에서 ‘여성’은 ‘원형’이며 그것은 근대적 제도와 이성적 세계와는 다른 속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구

7) 오영수의 해적이는 울주문화재단 오영수문학관 누리집의 <인간 오영수> 탭을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ucf.or.kr:478/oys/about.html> (접속일 2026. 4. 24.)

8) 허윤은 “해방기부터 등장한 다수의 청년단체는 탈식민 민족주의의 토대에 내재한 ‘호전적 남성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한다(허윤, 『남성성의 각본들』, 오월의 봄, 2021, 51쪽). 해방기에 활동한 여러 우익 청년단체는 식민지 시기에 ‘거세된 남성성’을 극복하고 해방을 맞아 국가 재건에 힘을 보태는 데에 ‘호전적 남성성’을 동원하였다는 것이다(같은 책, 67면). 이와 같은 해방기의 분위기 속에서 오영수가 자신의 시와 소설에서 보여준 ‘여성’과 ‘고향’의 이미지는 ‘폭력적 남성성’에 반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수경은 오영수의 소설에서 배경처럼 언급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난데없는 제도적 폭력 앞에 무력하게 서 있는 남성 주인공의 태도를 식물적 상태로 지적한다. 구수경은 오영수의 문학에 나타난 '식물적 상상력'은 경쟁에서 힘으로 승리하는 일을 강조하는 근대적(현대적) 세계의 '동물적' 특성과 대비되는 지점으로 평가한다. 구수경이 오영수의 소설에 나타난 식물적 속성을 고평하지는 않더라도 동물적 세계와 다른 식물적 상상력의 대비가 오영수의 소설이 낭만적 반문명적 '향수'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말한다.⁹⁾

구수경의 논의에서 '식물적 상상력'은 '순응'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오태호는 오영수의 소설에 나타난 남성 주체의 이성애적 탐색에 주목하면서 조금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오태호에 따르면 오영수의 초기 작품인 「고무신」과 「머루」에 나타나는 낭만적 연애가 이후 「갯마을」과 「산딸기」에서는 여성 육체를 향한 남성 주체의 갈망과 이성애적 욕망의 탐색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후자에서 나타나는 이성애적 욕망이란 '원형적' 욕망을 가리키는데, 원초적이고 원형적인 본능이 이성애적인 형식으로 나타나야 했던 이유는 근대문명에 관한 비판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¹⁰⁾

해방기 미군정 시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은 중요한 매개적 존재로 등장한다. 강정구는 전후 소설에서 '성매매 여성'을 형상화하는 데에 미국을 향한 선망이 내면화된 아메리카니즘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면서 오영수의 「학도란 사나이」를 언급한다. 그는 미군과 매음하다 도주한 아내를 찾아 나서는 '학도'와 미군과의 매음이 펼쳐지는

9) 구수경, 「오영수 소설에 나타난 식물적 상상력과 순응의 미학」, 『현대소설연구』 4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89-113쪽.

10) 오태호, 「오영수 소설에 나타난 서정적 리얼리즘 연구」, 『국제어문』 제48집, 국제어문학회, 2010, 163-164면. 오태호는 「갯마을」에서는 어촌 마을, 「산딸기」에서는 석남사 산사가 그러한 욕망이 펼쳐지는 공간이 된다고 하였다. 어촌과 산골은 자본이나 권력을 매개하지 않은 욕망의 본능을 드러내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글, 168쪽.

시대 상황에 화를 표출하는 ‘철’의 차이에 주목한다. 그는 ‘학도’의 태도에 미군과 미국을 향한 분노나 비판이 금지된 당대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분석한다.¹¹⁾ 이에 따르면 오영수 소설에서 ‘여성’은 한국 사회가 겪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적 폭력에 노출된 존재로 여겨지고, 남성 주인공은 이러한 ‘여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무기력을 드러낸다. 그러나 오영수의 소설에 나타나는 남성의 행위는 저항할 수 없음에서 오는 체념 이라기보다 오영수가 추구하던 논리에 따라 형상화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그 논리를 파악하기 위한 단서가 오영수의 해방기 시에 있다고 본다.

오영수의 시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기에 창작되었음은 그의 시에 ‘강제 이주’라는 민족의 경험이 반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근대사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한국 전쟁기까지 강제 이주의 경험이 지속되는 역사이다.¹²⁾ 실제로 오영수의 동요 작품에서도 ‘고향’을 떠난 이들을 향한 ‘설움’과 ‘그리움’이 나타나기도 했다. 오영수의 해방기 시 작품에서도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가난한 현실에서 경험한 여러 감정은 현실적인 체험을 기반으로 삼는다고 판단된다. 등장인물의 중심 서사의 배경으로 자리 잡는 역사적 사건과 달리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길어 올려지는 원천으로서 그 시대가 존재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양상을 통해서 오영수의 시 작품이 당시 문단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을 넘어서는 자신의 경험적 소재를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그러한 시적 형상화가 소설적 특성과도 영향 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고향’과 가족에 관한 ‘그리움’은 과거를 추억하는 감정이지만, 오영수에게 과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를 향한 긍정은 오영수의 현실 감각이 지닌 특수성을

11) 강정구, 「아메리카니즘과 성매매 여성-주요 전후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9집, 우리어문학회, 2014, 423-455쪽.

12) 김아람, 『난민, 경계의 삶』, 역사비평사, 2023, 24-25쪽.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론에서는 오영수의 시 작품에서 나타난 '향수'의 현실성을 살피고, 이후 '고향'과 그에 얽힌 '과거'를 수용하는 태도와 그것이 오영수의 문학에서 지니는 의미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실향'과 '귀환'이라는 구체적 경험과 '향수'의 관련성

오영수의 문학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전면에서 드러나거나 서사의 중심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대 굵직한 사건들은 사건의 극적 반전을 위해 잠깐 언급되는 정도일 뿐, 그 사건 자체가 서사의 토대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머루」에서 주인공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빨치산의 습격은 사건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등장한다. 시대적 맥락 속에서 주인공의 삶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거리를 두고 진행되던 전개가 현실적인 사건의 급작스러운 투입으로 파괴된다. 물론 「후일담」에는 '제주 4·3'과 '여수·순천 사건'이 제법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두 사건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서술하지 못하는 등의 오류가 나타나는데, 김동윤은 엄혹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외지인의 시선으로 '제주 4·3'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으로 평가한다.¹³⁾

그러나 오영수의 소설에서 현실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영수가 해방기에 창작한 시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이 시적 형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시의 내용과 형상화는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에서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비켜

13) 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화』 제2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172-173면.

선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해방 공간에서 시상이 전개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고향인 언양에서 일본으로, 다시 고향에서 만주, 부산을 거친 오영수의 행적은 자신의 시에 ‘고향’과 ‘향수’를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오영수의 시에서 ‘고향’은 원형적 공간 이기에 앞서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이가 경험한 ‘고향 상실’과 ‘이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울면서 떠나온/ 고향(故鄕)이지만/ 산(山) 넘어 아득-거한/ 하늘만 보
면/ 어쩐지 어쩐지/ 마음이 슬퍼// 수정산(水晶山) 넘어가는/ 흰 구름아/
옛 고장 지나거든/ 보고 와 주렴// 화장산(花藏山) 비탈에/ 고향처녀(處
女)들/ 지금도 짚신신고/ 뽕을 따는지

「향수(鄉愁)」 전문¹⁴⁾

가을은 가을잎 지는 가을은/ 어머니 품속처럼 고향이 그리워라/ 서리
맞은 반시감이 집집마다 붉으려니/ 늙새가 부는 날은 연도 날리리// 가
을은 가을은 타향(他鄕)살이 가을은/ 할머니 난정(暖情)처럼 고향이 그
리워라/ 갈대 편 언덕에 달뜨는 밤이면/ 초당(草堂)방 일꾼들의 통수소
리도 들리려니

「사향(思鄕)」 전문

두 편의 시는 오영수가 1939년 불령선인으로 낙인찍혀 방랑하다 부산에서 생활을 이어 나갔음을 생각할 때, ‘울면서 떠나온 고향’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전기적 사실과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향수」에서 ‘고향’은 ‘화장산’이라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오영수는 1909년에 경상남도 울산군 언양면 동부리 313번지에서 태어났으며, 해당 지역이 ‘화장산’ 근처라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해발고도 285m로 높지 않은 ‘화

14) 오영수, 『낚시』(오영수 대표 소설 포켓북-10), 울주군·오영수문학관, 2017, 65 쪽. 이후 본고에서 언급하는 오영수의 시는 모두 울주군·오영수문학관에서 발행한 『낚시』에서 인용하는 것이다. 이에 오영수 시에 관한 각주는 생략한다.

장산'은 울주군 언양읍과 상북면에 자리 잡은 산이다.¹⁵⁾ 꽃을 숨긴 산이라고 전해지는 '화장산'은 봄이면 아름다운 꽃이 가득 피고, 정상에서 언양읍성, 언양 시장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¹⁶⁾ 민공기에 따르면 '화장산'은 '당산'을 가리키는 '고장산'의 차자표기이므로 언양 고을의 '주산(主山)'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¹⁷⁾ 오영수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공립고등여학교가 있던 수정동의 수정산을 넘어가는 구름을 향해 '화장산'의 풍경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부탁한다. 오영수는 '고향'이라는 상징적인 공간과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공간을 언급함으로써 물리적인 거리감을 드러낸다.

오영수의 '향수'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볼 때, 「사향」에서의 '어머니'와 '고향' 역시 자신의 유년 시절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에서는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의 풍경을 떠올리고 있다. '반시감', '연날리기'는 유년 시절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영수는 위의 시에서 '고향처녀들'과 '초당방 일꾼들'을 언급함으로써 시를 마무리한다. 이 부분은 오영수의 시선이 자신뿐만 아니라 고향 주민의 삶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의 시선이 가닿는 그들은 결코 부유한 존재라고 볼 수 없는 이들이다.

그러나 오영수가 형상화한 '고향'의 인물들은 특별한 계층의 현실을

-
- 15) 민공기는 271m로 기록하고 있다. 민공기, 『울산의 지명』, 도서출판누리, 2020, 573쪽.
- 16) <꽃을 숨긴 산 화장산 [KBS울산 보물창고-울산실록]>, 《울산시대》 유튜브채널, 2025.3.11. <https://www.youtube.com/watch?v=ODBYtriU5Pc> (접속일 2026. 5. 1.)
- 17) 민공기, 앞의 책, 574-575쪽. 민공기에 따르면, 울산에는 청량읍 중리와 온양읍 삼광리에 걸쳐서 자리잡은 '화장산(花藏山)'이 있다. 이 화장산은 고장산, 쇠장산이라고 불리던 것을 화(花)의 춘이 꽃이고, 장(藏)의 음이 장인 것에 기대어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 이 '고장산' 혹은 '쇠장산'은 '고을당산 > 골당산 > 고당산 > 고장산·쇠장산'이라는 변이를 거쳐서 '화장산(花藏山)'이라는 차자표기에 이르렀으리라 설명한다.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와 같은 이유로 오영수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비역사적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수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풍경에는 전형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형성은 단지 근대적인 세계를 비판하기 위한 개념으로만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해방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농촌 지역의 비중이 상당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들의 삶은 정착할 토지의 유무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해방 이후 귀향 동포들은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지를 떠도는 삶을 지속해야 했다.¹⁸⁾ 다시 말해 시적 형상으로 전달되는 ‘고향’의 모습은 오영수가 근대적인 세계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한 인위적인 가공물이 아니라, 오영수가 경험한 삶이고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실존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영수의 시는 현실적인 모습을 담아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본인의 처절한 경험에서 온 것만은 아닐 수 있고 문학적 학습의 결과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시에는 분명 당시의 현실이 담겨있다. 오영수는 일제 강점기 ‘고향’을 떠났던 이들이 고국(고향)으로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현장을 담은 시에서도 해방의 환희보다는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봄이 오면은」과 「아버지가 그리워」는 모두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떠난 이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소재로 쓰였다.

봄이 오면은/ 봄이 오면은 얼음이 녹고/ 이 강산(江山)에/ 무궁화도/
다시 피겠지// 봄이 오면은/ 징용을 피해서/ 멀리멀리 달아난 우리 오빠
도/ 기 들고 고향치며/ 돌아오겠지

「봄이 오면은」 전문

18) 차철욱, 「전쟁 난민과 울산-귀환동포를 중심으로」, 『근현대 울산의 공간과 사회 변화』, 울산역사연구소·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5. 10. 17., 75쪽.

1946년 2월 5일에 발표된 「봄이 오면은」에서 '고향'은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의 징용을 피해서 도망했던 오빠를 기다리는 '여성'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도린 매시에 따르면 '전형적인 여성'은 자연의 은유로 읽히며, 근대성과 매개되어서는 상실되거나 남겨진 것을 표상한다.¹⁹⁾ 징용을 피해 달아난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동생'은 '고향'이라는 공간에 남겨진 존재이면서 '오빠'가 돌아와야 할 장소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갈망하는 대상이 된다.

'무궁화'와 '기(태극기)'라는 상징적 대상은 잃어버린 조국 주권을 회복한 감격을 나타내는 기표로 이해된다. 화자가 기다리는 '오빠'는 전형적인 근대적 남성성의 원리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국주의 일본에서 강제하는 '징용'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일본의 국민이 되기를 거부하는 '오빠'는 자신의 국가가 아닌 국가의 징용을 거부한다. '오빠'는 단 하나의 국가에 귀속되겠다는 욕망과 함께 다른 국가는 배제하겠다는 욕망을 동시에 표출하는 근대 국민 국가의 국민임을 알 수 있다.²⁰⁾

물론, 오영수의 시에서 '고향'에 남겨진 존재가 반드시 '여성'인 것만은 아니다. 오영수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오늘도 나 혼자/ 기다렸다고/ 북쪽으로 달아난/ 아버지가 그리워/ 순
이네 집 담 밑에서/ 기다렸다고/ 오늘도 정거장에/ 나가 보았소/ 아버지

19) 도린 매시, 정현주 옮김,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58쪽.
20) 마르쿠스 슈뢰르는 '민족'과 '국민'이라는 개념에 나타나는 '배타적 성격'을 다 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민 역시 독점권 내지 배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는 다른 어떤 국가도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개인 역시 하나의 국가에만 귀속될 수 있고 다수의 국가에 속할 수 없다. 하나의 정치적 민족 구성원들이 더 이상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 개인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는 위급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215쪽.

오시는가/ 나가 보았소/ 미국 과자 먹는 애들/ 많기도 하다/ 오고 가는
기차를/ 헤어만 보고/ 울며 울며 나 혼자/ 돌아왔다오/ 이 봄에도 아버
지는/ 안 오시려나

「아버지가 그리워」 전문

「아버지가 그리워」에서 ‘고향’은 ‘북쪽’으로 달아난 아버지를 기다리는 ‘나’가 머무는 공간이다. 「아버지가 그리워」에서는 ‘나’의 상황이 조금 더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과 함께 형상화되었다. “미국 과자 먹는 애들 많기도 하다”라는 진술이 그것이다. 이 진술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행위와 무관하게 등장한다. ‘순이네 집 담 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정거장’까지 나가 기차를 바라보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미국 과자 먹는 애들’을 향한 시선의 이동은 갑작스럽기 때문이다. ‘순이네 집’은 ‘여성’의 집이면서 유년 시절을 공유하는 존재의 집이라는 점에서 ‘고향’을 상징한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의 안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정거장에 나가게 된 나에게 펼쳐지는 외부 세계는 낯설다. 그 낯선 외부 세계의 모습이 ‘미국 과자 먹는 애들’로 목격된다.

‘미국 과자 먹는 애들’의 모습이 이 시를 단순한 ‘그리움’의 정서로만 파악될 수 없게 만든다. ‘아버지’, ‘기다림’, ‘그리움’이라는 의미장에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등장함으로써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의 관련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시 입장에서 가장의 부재는 한 가족의 위기를 뜻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 과자 먹는 애들’과 다르게 ‘나’는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그 아이들은 ‘나’와 달리 오직 달콤한 과자를 먹고 배를 불리는 데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보인다. 「봄이 오면은」과 「아버지가 그리워」에서 ‘남성(성)’의 상실은 가난한 삶을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불러일으킨다.

김호기에 따르면, 미군정기 동안 미군정경찰은 일제시대의 경찰과 마

찬가지로 사회적인 감시를 진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곡 수집’ 같은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좌익세력의 활동과 사회운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²¹⁾ 오영수의 시에 ‘미국 과자’를 얻어먹는 아이들의 모습은 달콤한 과자 한 조각을 쥐여 주고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진정한 해방을 가로막고 있었던 상황을 읽게 한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해방 이후에도 성립하지 못한 진정한 주권국의 모습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능라추숙에/ 양털조끼에/ 겨울은 어드메냥/ 해풍(海風)도 시원하리//
극빈자(極貧者)구호상자(救護箱子)를/ 빌리지 않더라도/ 호화로운 그 차
림/ 눈이 부시오// 겨울은 너무 차다/ 여름은 너무 덥다/ 발 벗은 사내아
이/ 울며불며 떨건만/ 다이아 보석반지 이가시리다

「부청 앞에서」 전문

「부청 앞에서」의 장소인 ‘부청’은 부산 중앙동에 위치하였던 옛 부산 부청으로 보인다. 부산부청은 부산 중구 동광동 용두산 남쪽에 자리 잡은 부산이사청 건물로 르네상스식 2층 건물이었다고 한다. 이후 수년간 용미산을 허무는 공사 끝에 1936년에 신청사를 완공하면서 그곳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춘 근대식 건물이었던 신청사는 이후 1990년대까지 이용되었다고 한다.²²⁾ 이처럼 건물 자체의 호화로움은 물론이고, 식민지 시기에 완성된 관공서였다는 점에서 민족이 처한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에서는 부산부청 앞에서 가난한 아이와 호화로운 이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부유한 자의 호화로움은 ‘능라추숙, 양털조끼, 다이아 보석반지’ 등으로 언급된다. 그는 ‘극빈자구호상자’를 받을 필요도 없이

21) 김호기,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나남출판, 1999, 159쪽.

22) PNU로컬리티아카이브, <https://bpa.localityarchives.org/collections/show/19> (접속일 2026. 3. 12.)

그 자체로 눈이 부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극빈자구호상자’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물론 시에서 빈자들의 현실이 적극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가난한 현실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은 ‘발 벗은 사내아이’ 정도이다. 좋은 옷과 사치품을 갖춘 자와 신발조차 신지 못한 ‘사내아이’의 대비를 통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박태일은 오영수가 이 작품에서 보여준 현실 인식은 자발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그는 이 시의 풍경은 “오영수의 것이라기보다는 당대 부산 지역시의 대표 현실주의 시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정진업·고려촌과 같은 이의 인민시를 따라가 보는 수준”이며 같은 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하던 “박영한 시인의 작품과도 맞물려 있다. 그에 대한 타자적 학습 과정에서 마련된 풍경이기도 한 셈”이라고 평가하였다.²³⁾ 당시 오영수가 교류하던 문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부청 앞에서’ 마주한 빈부의 대비는 누구에게라도 당시 현실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여겨졌으리라고 넉넉히 짐작된다. 오영수와 교류하던 문인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곧 오영수의 주체적인 경험보다 간접적인 체험에 근거한다는 판단의 충분한 근거일 수는 없을 것이다. 김호기에 따르면, 해방 이후 단기간에 이루어진 대규모 인구 유입은 가난과 실업 주택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과정에서 유입인구는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투기와 부정부패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²⁴⁾ 이 시에서는 그와 같은 박탈감을 읽을 수 있다.

박태일은 또한 “오영수 초기시의 밑그림은 오히려 자연스런 경관공간이 이룬다”라고 분석한다.²⁵⁾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경관공간’은 ‘자연공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영수의 시 작품에서 자연이 단순한

23) 박태일, 앞의 글, 37쪽.

24) 김호기, 앞의 책, 168쪽.

25) 박태일, 앞의 글, 같은 쪽.

시적 배경에 머무는 데서 나아가 인물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영수가 그려내는 감정은 '고향'을 향한 짙은 '그리움'과 '회한'이 주를 이룬다.

어느 먼-나 나라/ 안타까운 소식이기에/ 내 얼어붙은 마음에/ 봄비는
내려// 아드-그한 옛날/ 아무도 모르게 불살라 버린/ 한 가닥 순정에/
향수(鄉愁)는 깊다// 어느 먼-나 나라/ 애달픈 소식이기에/ 내 얼어붙은
마음에/ 봄비는 내려// 식어진 눈물스속에/ 또 한 번/ 회한(悔恨)의 파리
-스한/ 새싹이 트다

「봄비」 전문

향수는 가을에 깃들고/ 가을은 향수를 찾고/ 황혼처럼 가을은/ 고요히
외롭다// 곡식 다-앗아가고/ 텅 빈 밭두렁에/ 드문드문/ 희게 갈대만 피어
// 새때도 조롱을 오지 않고/ 허수아비는 혼자/ 허수아비처럼/ 고독과 공허
를 떨다// 낙엽을 밟으며/ 황혼처럼/ 고요히 외롭게/ 혼자 가을에 젖다

「가을」 전문

「봄비」에서 얼어붙은 마음에 내리는 '봄비'는 생동하는 기운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만드는 것은 아닌 듯이 보인다. '봄비'는 '어느 먼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이기 때문이다. '어느 먼 나라'는 화자의 가족이 징용이나 피신 등의 이유로 이주한 타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타국으로 떠난 이들을 향한 '그리움'을 간직한 화자에게 1연과 2연의 '봄비'가 '향수'라는 '그리움'을 솟구치게 만든다. 그러나 2연에서 봄비는 3연에서 회한의 짙을 띄운다. '식어진 눈물'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미 그 감정은 잊힌 것이다. '봄비'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을」에서는 쓸쓸한 가을에 깊어지는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 '텅 빈 밭두렁'에 홀로 남겨진 '허수아비'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런

데 오영수는 ‘허수아비는 혼자 허수아비처럼’ 고독과 공허를 떠다고 표현한다. ‘허수아비=허수아비’가 아닌 ‘허수아비≒허수아비’라는 속성이 부여된다. ‘허수아비’의 존재 의미는 새가 몰려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새가 몰려들지 않는 논과 밭에서 ‘허수아비’의 존재 이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수아비’는 새가 몰려들도록 내버려 두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를 실현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허수아비’가 자신을 피하는 새들과 어울리며 고독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밭에 세운 주인과의 관계를 포기해야만 한다. 반대로 주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새들과의 관계 단절은 불가피하다. ‘허수아비는 혼자 허수아비처럼’ 고독하다는 것은 ‘허수아비’가 처한 존재의 역설을 드러낸다. ‘허수아비’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독을 감수해야 한다.

파초(芭蕉)의 병(病)들어 갈가리 찢어지고/ 늙은 잠자리 깃들인 눈알
 맹이에/ 가을이 아물거리다.// 파초 너 무슨 인연(因緣)으로/ 이방(異邦)
 의 나그네 되어/ 이 뜰에 와 있느냐// 사나운 빗방울이 몇 번 두드리고/
 몇 번 바람이 찢어 가도/ 너의 지조(志操)는 다만 하날/ 저 남국(南國)
 을 향(向)한 정열(情熱)이었다./ 향수(鄉愁)를 안고 피곤(疲困)의 밭을 퍼
 고/ 이 땅의 생리(生理)에 인종(忍從)하라/ 내 한 줌 흙을 너 뿌리에 덮
 어/ 북풍(北風)을 막아주마

「파초(芭蕉)」 전문

오영수는 ‘허수아비’와 같은 고독한 존재를 ‘파초’의 ‘향수’를 통해서도 표현한다. 남국에서 온 ‘파초’를 바라보며 ‘고향’을 잃은 자신의 감정을 투사한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향수’ 너머에 존재하는 ‘지조’이다. 그러나 그는 ‘파초’의 지조를 ‘한날 지조’로 평가한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체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대신 이 낯선 땅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것이야말로 ‘파초’의 의무처럼 여겨진다. 이 땅의 생리에 인종하라는 조언과 함께 뿌리에 흙을 덮어주고 북풍을 막아주겠

다는 모습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다독이는 듯하다. 현실을 묵묵히 참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파초'의 '향수'에 내재한 '지조'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오영수는 「호마(胡馬)」에서도 “인종(忍從)과 체념(諦念)은 한숨 삼키고 때때로 고개 드는 것/ 조국이 그리우냐”라는 표현을 통해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는 '말'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조선의 채찍'으로 몸이 쇠한 '호마'는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견디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감정이 투사된 존재이다. 그러나 '호마'에게 고향을 향해 내달릴 힘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추억(追憶)만 반추(反芻)하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현실의 고통을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고향'을 상실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목격할 수 있다.

'고향'을 그리워하기보다 현재 자신이 존재하는 곳에 적응하라는 당부는 현실을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결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그 이유는 '고향'을 상실한 '파초'에게 '향수'라는 감정은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자리 잡은 감정, 혹은 불현듯 솟아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향'을 향한 '그리움'으로서 '향수'를 외면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히 자신을 꺾어내야 한다.²⁶⁾

오영수의 해방기 시에서 형상화된 현실의 모습이 간접적인 체험으로만 이루어졌다고만 판단하기는 힘들다. 오영수 자신의 경험과 당시 주변인의 삶에서 목격한 내용이 융화하여 시적 형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것을 목격함은 자기 경험이고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²⁷⁾ 오영수는 개인적인 경험 내용을 토대로 민족 전체가 경험했던 암울한

26) 1974년에 발표한 「三湖江」에서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나 고향에는 가기 싫다.”라고 쓴다(오영수, 『황혼』(오영수 대표 소설 포켓북-8), 울주군·오영수문학관, 2017, 181쪽). 오영수가 해당 작품에서 보여주는 서술은 위 시에서 '향수'에 시달리는 '파초'에 건넨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27) 크리스토퍼 코흐, 박제윤 옮김, 『생명 그 자체의 감각』, 아르테, 2024, 27쪽.

현실로 확장하여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여성' 인물에게 전하는 '옛이야기'와 현실 인식 양상

오영수의 시에 나타난 '향수'의 감정은 실제로 '고향'을 향해 느끼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삶의 풍경이 자신의 시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영수는 '향수'의 감정을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는다. 해방 공간에서 민족 대부분은 '고향'을 잃은 '난민'이었고, 고향을 잃지 않았던 이들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오영수가 자신의 시에 등장시킨 '어머니', '누이(순이)', '여학생', '처녀'와 같은 '여성'은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그려내기 위한 상징적 존재이기 이전에 현실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인물들이다. 이들 '여성' 인물을 통해서 가난과 희망 사이의 현실 감각을 그려내고 있다.

김동춘의 지적처럼, 해방이 곧 식민 지배의 소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민 지배의 과정에서 한국 농민에게 가해진 수탈과 봉건적 지배 계급으로의 재편은 근대적 부르주아와 신흥 국가 관료의 적극적인 육성 과 함께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 지배의 종료는 이러한 잔재들을 청산하는 과제를 남겼고, 일제 강점기에 억압당한 피지배층의 권리와 이익을 되찾는 과정이 요청되었다.²⁸⁾ 그런 의미에서 1945년 8월에는 봄이 오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일제 강점기에 피지배층이었던 한국인 대다수에게 봄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여름에는 일본인이 거주하던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난민의 수용을 진행하고, 1946년 11월에는 '전재민가주택건설 조성회'를 구성하여 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주택 건설을

28)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11, 110쪽.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²⁹⁾ 해방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국가 권력은 해방 공간에서 민중이 경험한 가난과 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영수의 시에서 가난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을 꿈꾸는 존재들은 '여성'으로 나타난다.

떨지 않아/ 봄도 오려니/ 처녀야!/ 가슴에 부풀어 오르는/ 보라색 꿈
은/ 저 아득한 창공에 두었다/ 저녁노을 아름답게 장식하여라// 그리고
기록이 있거든/ 푸른 바다 깊이/ 늙은 소라고둥 껍질 속에/ 감춰 두어라
/ 토막토막이/ 아름다운 진주가 되려니

「꿈」 전문

오영수가 해방기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확답할 수 없지만, 그의 시에서 이와 같은 현실에 관한 구체적인 관점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³⁰⁾ 그는 '봄'이라는 상징적인 계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대와 그것의 지연을 보여주고 있다. 「꿈」에서 '봄'을 기다리는 '처녀'에게 '꿈'은 지상의 것이 아니다. 언젠가 이루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아득한 창공'에 어울린다.

그러나 푸른 하늘에 꿈을 두었더라도 그것은 저녁노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역할에 그친다. 해가 넘어가는 순간을 붉게 물들이기 위해 처녀의 '보라색 꿈'은 하늘에 놓인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푸른 바다 깊이 감추라고 말한다. 이때 처녀의 마음에 간직한 기록이란 누군가를 향한 사랑에 관한 것일 수도, 이루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록은 걸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소라고둥 껍질'에 감춰 두

29) 김아람, 앞의 책, 59-61쪽.

30) 오영수의 동생이었던 오호근이 이른바 '언양격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영수 자신도 불령선인으로 오해받으며 감시당하던 사실 때문인지, 이념적인 행동에 부정적이었다고 해석한다. 이병길, 『영남알프스, 역사 문화의 길을 걷다』, 책과나무, 2018, 58-60쪽.

면 언젠가 아름다운 진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바슐라르는 고대인에게 조개는 완전한 인간 존재를 상징하였고, 그중 ‘조개껍질’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그 껍질 안에 숨어 있는 연체 유기체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³¹⁾ 꿈을 감추어 두는 ‘소라고동 껍질’은 ‘조개껍질’처럼 그 속에서 영혼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존재이다. 이는 결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영수는 ‘꿈’과 ‘기록’의 결실을 대단한 것으로 그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의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은 영원할 수 없다. 노을은 해가 지는 짧은 순간에서야 비로소 볼 수 있다. ‘진주’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수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밖으로 꺼내 보이는 순간 ‘진주’가 맺힐 가능성도 줄어들는다. ‘꿈’을 향한 마음은 푸른 하늘을 향해 널리 퍼는 것이 아니라 ‘저녁’의 짧은 순간을 장식하고, ‘꿈’을 향한 기록은 겉으로 깊숙이 감춤으로써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도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영수는 졸업하는 ‘여학생’에게도 「꿈」에서 ‘처녀’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을 전한다.

여학생(女學生)! 너는 초록빛 햇제비/ 강남(江南)을 꿈꾸는/ 초록빛
햇제비// 까-만 세-르에/ 흰 목둘레도 그러하거니/ 창(窓)문 열고 고개
내밀고/ 창공(蒼空)을 종잡거리는 것/ 여학생(女學生)! 너는 강남(江南)
갈 깃(羽)을 다듬는/ 초록빛 햇제비/ 제비야! 강남(江南)은 바다 너머/
아득히 먼 곳이란다/ 너 비록 화살처럼 날카롭고/ 탄도(彈道)처럼 빠른/
나래를 지녔더라도/ 함부로 무모(無謀)를 할까 부나// 풍우(風雨)가 심
(甚)한 날은/ 섬 그늘에서/ 조용히 깃을 펴고/ 내일(來日)의 여정(旅程)
의 기상도(氣象圖)를 보라/ 그리하여/ 내년(來年) 버들가지에 물오르고/
봄이 오거든/ 복(福)된 박씨 물고/ 옛 깃(巢)을 찾아오라

「여학생(女學生)」 전문

31)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23, 268쪽.

졸업 측사로도 어울릴 법한 위 시는 '졸업생(卒業生)을 보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위 시에서도 여학생에게 차분함과 겸손함을 주문하는 듯하다. '여학생'을 강남으로 날아갈 '초록빛 햇제비'라고 표현하면서도 아득한 곳으로서 강남을 향해 무모한 날갯짓을 해서 안 된다고 충고한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날에도 자신의 패기만을 믿고 함부로 날지 말 것을 주문한다. 이때는 가만히 기상을 살피면서 다음 채비를 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영수가 여학생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뜻밖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바로 내년에 다시 봄이 찾아오면, 복된 박씨 물고 옛 깃을 찾아오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시의 원문에서는 "찾아라오"이지만 오영수문학관에서 편찬한 책에서는 '찾아오라'로 수정하였다고 밝힌다.³²⁾ 그러나 '찾아라오'가 잘못된 표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옛 깃이 있는 곳을 찾아 돌아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수정이지만, '찾으라오'인 경우에도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돌아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자신을 상징하는 '옛 깃'을 잊지(잃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주목할 부분은 박태일의 논의에서 인용한 작품은 '옛 깃(羽)'으로,³³⁾ 오영수문학관의 선집에서는 인용된 바와 같이 '옛 깃(巢)'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후자의 표기를 따른다면, '강남'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새 깃'으로 단장하였던 '여학생'이 '복된 박씨 물고' 끝내 찾아와야 할 '옛 깃'은 '깃털(羽)'이자 '집(巢)'이다. 그런 맥락에서 '옛 깃'은 '집=고향'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중요한 것은 '새 깃'이 아닌 '옛 깃'을 찾으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학생들은 졸업 후 새로운 세상(강남)을 찾아서 떠난다. 그런 여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찾으라는 말 대신, '옛 깃'을

32) 오영수, 『뉘시』, 90쪽.

33) 박태일, 앞의 글, 45쪽.

찾으라는 주문은 무슨 의미인가. 광복 후 도래한 세상의 모습이 이상적인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일 수 있다. 가난은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적 혼란과 시민을 향한 정부의 감시도 여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영수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미래보다는 구체적인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전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체의 성립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념 갈등 속에서 자신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을 향해 투신하는 이들의 삶은 오영수의 시각에서는 불완전하거나 불안한 것이었을 수 있다.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힘은 ‘과거’에 있는 것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과거’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은 구수경이 지적한 식물적 상상력에 가까운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과 태도가 해방 이후 한반도에 닥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성’의 추구로 곧장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에 앞서 오영수는 해방기 한국의 ‘여성’이 처한 현실을 ‘가난’과 연결하고 있다. ‘누이’와 ‘어머니’로 대표되는 가난한 ‘여성’은 대다수 한국인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이다. ‘나’와 ‘누이동생’을 내세우는 시에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숙아/ 너 언제부터/ 구름을 쳐다보는/ 버릇이 늘었느냐/ 까칠한 손에/
한 줌 들국화까지 꺾어 쥐고// 수수밭 이랑에/ 황혼이 스며든다/ 수건
벗어 머리를 떨고/ 한걸음 앞서 집으로 돌아가렘/ 토장국 끓이고 저녁
밥을 지어라// 강낭대 씹어 빨고/ 날무 베끼 먹고/ 점심을 때웠으니/ 맨
들 오죽히나/ 고프라// 애미 여이고 열일곱/ 아직 복숭아털도/ 가지지 않
은 얼굴에/ 눈만 초롱초롱/ 맑아 오는 요즘// 옥색 바탕에/ 흰 테두리 한
고무신 한 켤레/ 사고 싶다고/ 날이 날마다 들에 나와/ 벼 이삭 줍는 너
// 숙아/ 우리 언제나/ 허리끈 풀어 놓고/ 밥 떡을 날 오거든/ 장독간 모
통에/ 봉선화도 심자구나/ 구름도 쳐다보고/ 별도 세며 옛이야 하자구나
「오늬(1)_오빠의 노래」 전문

「오뉘(1)_오빠의 노래」에서 '나'는 여동생이 '구름'을 쳐다보는 버릇이 늘었느냐고 나무라면서도 성숙한 여인이 되어가는 동생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도 표현하고 있다. 집안 형편이 더 나아질 때가 오면 작은 화단도 꾸미고 구름과 별을 쳐다보면서 '옛이야(옛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한다.

동생인 '숙이'는 사랑을 하고 싶은 나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구름을 쳐다보는 행동이나 들국화를 꺾어 쥐는 행동, 흰 고무신을 사기 위해 날마다 일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동생에서 어엿한 처녀로 자라난 여동생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들뜬 마음을 알면서도 '나'는 자신과 '숙이'의 마음에 자리 잡은 상처를 되새기는 '옛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는 형편이 나아지든 가난한 삶이 이어지든 옛이야기에 담긴 슬픈 경험을 그냥 묻어두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꿈」에서 '처녀'에게 '꿈'과 그에 관한 '기록'을 숨기라고 말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옛이야기'를 향한 관심은 오영수 소설 속에서도 나타난다. 「머루」에서 엄마에게 들려달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물싸움 이야기'로 비만 오면 해결될 허무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오뉘(석이, 연이)'와 '분이'에게는 지루한 겨울밤을 달래줄 흥밋거리가 되지만, 산골 공동체의 안락함과 대비되는 역사적 이념 싸움을 암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비가 오면 해결될 물싸움과 달리 현실 속 이념 갈등은 쉬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오영수는 작가의 목소리로 들려준다.³⁴⁾ 오영수의 소설에서 이야기는 서사의 현실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과거와 현실의 분리 불가능성을 독자에게 암시한다.

과거('옛이야기')와 현재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양상은 그의 소설 속 현실에 '설화'와 '이야기'가 끼어드는 양상과도 맞닿아 있다. 「산딸기」의 여승이 들려주는 자신의 지난 이야기는 기구한 운명으로 비극

34) 오영수, 「머루」, 『갯마을』(오영수 대표 소설 포켓북-1), 울주군·오영수문학관, 2016, 223쪽.

성을 강조하는 데에서 나아가 고통스러운 과거가 현재를 파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가 절벽에 핀 산딸기처럼 귀한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기구한 이야기가 부정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다. 「갯마을」의 ‘해순’과 아낙들도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공통된 삶의 고통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부정하지 않고 익살로 넘길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지 않는다. 1948년에 창작되는 「오늬」 후편에서 오영수의 ‘옛이야기’가 ‘슬픈 이야기’로 나타난다.

숙아! 호롱불 심지 돋우고/ 내 곁으로 다가오너라/ 가난한 사람끼리/
슬픈 이야기나 즐기자// 보리 흥년이 몹시 들던/ 어느 이듬해 봄에/ 어
메는 부종으로 돌아가셨다/ 가난을 몰 마시듯/ 허리끈으로 양식을 삼다/
기어코 어메는 돌아가셨다// 약보다도/ 이밥이 먹고 싶다면서/ 그보다도
강보에 싸인/ 숙이 너를 두고/ 어이 눈감고 가겠느냐고/ 앞뒤 논들에/
개구리 울음이 자지러지고/ 울타리에 짙레꽃이/ 허영게 핀 달밤이었다//
그러기에 숙아! 슬픔과 설움이/ 박 넝쿨처럼 얽히고/ 서까래 살살이 썩
어진/ 이 오막살이 고장을/ 나는 진정 숙이 너를 위해/ 살아왔느니라//
숙이 너 어느덧 열일곱! 앞가슴을/ 버릇처럼 여미는/ 처녀가 되었구나//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다/ 내 곁으로 다가오너라/ 아_봄은 어디
서/ 멈추고 있는고/ 강남 제비는 언제 오려나.

「오늬(後篇)」 전문

위 시에서 오빠인 ‘나’는 누이동생인 ‘숙이’를 향해서 슬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굳이 꺼낼 이유가 없을 듯한 ‘어머니’의 ‘가난’과 ‘고통’, ‘죽음’을 이야기한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남겨진 여동생 ‘숙이’를 향한 책임감도 고백하고 있다.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의 죽음은 「공동묘지에서」라는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메요!/ 약보다도 이밥이 먹고 싶다던 어메요!/ 오늘은 나물시에 이밥을 차려 왔소/ 왜 말이 없는 기요!”라는 ‘대머리 총각’의 울부짖음은 위의 시

에서 '나'가 들려주는 어머니와 오누이의 '슬픈 이야기'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오영수는 '나'와 '대머리 총각'이 간직하고 있는 '슬픈 이야기'를 '숙이'라는 '여성'에게 전하고 있다. 자신의 굶주림보다 남겨질 딸을 향한 걱정을 전했다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동생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하는 오빠('나')는 동생인 '숙이'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열일곱 처녀가 된 여동생을 향해 오빠인 '나'는 '슬픈 이야기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다. '가난'한 오누이에게 '옛이야기'가 최선일 수는 없다. '슬픈 이야기'에 결합한 조사 '-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진 차선이다.³⁵⁾ '나'는 가난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난 과거의 '슬픈 이야기'를 즐기자는 역설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나'가 기다리는 '강남 제비'는 앞의 「여학생」에서 '새 깃'을 다듬어 강남으로 가서 박씨를 물고 돌아올 햇제비(여학생)와도 연결되어 있다.

고역(苦役)에 시달린 너 등어리/ 바위처럼 굳어지고/ 오직 적(敵)을
위(爲)한 두 뿔다귀언만/ 헛되이 풍상(風霜)의 이끼만 피니/ 절념(絶念)
인 양 조용조용/ 메마른 짚을 씹는 미련한 증생아// 너 누굴 위(爲)한 삶
이었기에/ 죽음마저 안도(安堵)치 못해/ 쇠잔(衰殘)한 몸 눈 껌박이며/
한 자루 도끼 뿌리에/ 목을 내미는 처절(悽絶)한 종언(終焉)이나// 훗날
너 자손(子孫) 조상(祖上)을 물을 때/ 뿔을 너는 이약하려느냐/ 초조(焦
燥)하기도 미련한 증생아// 뿔 날카롭게 갈아세우고/ 네 발 버티어/ 분
노(憤怒)의 두 눈에 푸른 살기 띠고/ 산(山)도 무너지라 아우성치며/ 너
희들 족속(族屬)을 하여금/ 설욕(雪辱)할 날 언제 있겠느냐/ 육중하기도
미련한 증생아!

「소」 전문

2장에서 살핀 「파초」에서는 참고 인내하는 순응적 삶이 중요했다면,

35)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163쪽 참고.

「소」에서는 나중에 들려줄 ‘이야기’의 존재가 중요하게 언급된다. 매를 맞으며 종일 밭을 갈고 일했을 ‘소’는 어떻게 된 일인지 반항을 하거나 도망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심지어 더는 일할 수 없는 지경이 되거나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삶이다.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 ‘소’를 두고 미련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 거듭되는 ‘미련한 짐승아’라는 표현은 삶의 고통을 존재에 각인하는 숭고함으로 읽히게 만든다. 그 이유는 훗날 자손들이 조상에 관하여 물을 때 ‘이야기해 줄 무엇’은 바로 인종의 삶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오뉘」 연작에서 말하는 ‘슬픈 이야기’와 ‘옛이야기’의 의미가 과거의 ‘고난’을 잊지 않는 삶과 연관되어 있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각 개인의 삶에 내재한 기구하고 슬픈 기억들은 고스란히 한반도 전체에 스며들며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 오영수는 그것을 ‘낙동강’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통해서 전달한다.³⁶⁾

아드-그한 세월(歲月)과/ 기구(崎嶇)한 역사(歷史)를 알고/ 정작 슬픔도 설움도 지녔으련만/ 낙동강(洛東江) 물은 잊은 듯 모르는 듯/ 오늘도 유유(悠悠)히 흐르고만 있다// 변두리 변두리마다/ 오곡(五穀)은 우거져/ 목맨 송아지 석양(夕陽)을 조을고/ 어젯밤 빗물에 고기는 뛰어/ 어옹(漁翁)의 그림자 강(江)물/ 더욱 한가롭다// 아 낙동강(洛東江) 물아/ 이 겨레 여원 가슴에/ 너는 언제나 언제나/ 어머니 젓가슴처럼/ 풍성(豐盛)하여라

「낙동강(洛東江)」 전문

오영수가 위 시에서 ‘낙동강’을 ‘어머니 젓가슴’과 동일시하는 것은

36)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은 수전 벅모스의 ‘보편사’ 개념을 참조할 수 있다. 수전 벅모스는 ‘다공성’의 개념을 통해서 폭력적 이분법을 넘어선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수전 벅모스, 김성호 옮김, 『헤겔, 아이티, 보편사』, 문학동네, 2012, 155-158쪽 참조.

‘강물’을 ‘젓줄’로 지칭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은유이다. ‘낙동강’은 모든 기억을 잇는 것처럼 경상남도 지역 변두리 변두리마다 유유히 흐르고 스며든다. ‘낙동강’과 ‘어머님 젓가슴’을 연결하는 은유가 지니는 의미는 앞서 언급한 시에서 현실적인 ‘가난’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가난’은 ‘꿈’을 향한 열정에도 제동을 걸 정도로 심각한 실존적 위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난’ 속에서 어떻게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점을 오영수의 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영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가난’을 극복하고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잇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슬픔을 다시 꺼내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난’은 극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가난’의 해결만큼 중요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오영수는 힘겨운 삶을 이겨냄으로써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가난’의 기억이 존재 깊숙이 각인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존재가 시에서 ‘낙동강’으로 나타난다. ‘낙동강’은 한반도의 ‘기구한’ 역사를 활해주면서도 자기 안에 ‘슬픔’과 ‘설움’을 간직한 존재이다. 그러면서도 ‘낙동강’은 인간 세상의 흐름과 무관하게 유유히 흐름을 보인다. 모든 것을 잇는 듯이 보이는 강물의 고요함이 ‘오곡’과 ‘가축’, ‘물고기’가 살아가는 원천이 되고, 늙은 낚시꾼의 삶도 지탱해 준다. ‘슬픔과 설움’을 품은 ‘낙동강’의 흐름은 경남지역의 ‘슬픈 이야기’이자 ‘옛이야기’이다. ‘겨레의 여원 가슴’에 풍성하게 존재하는 ‘낙동강 물’은 시간을 초월하여 삶을 살아낼 원동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낙동강’은 ‘원형적 고향’이라는 태초의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에서 살아온 겨레의 삶과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형성한다고 판단된다. 각자의 삶에서 시작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겨레의 여원 가슴’ 속에 흐르는 것이다.

내혼자 즐기고/ 내혼자 가질/ 하늘이 그리워/ 숲으로 오다// 숲이여/
외로운 사람/ 외롭을 함뻍 지니고 왔기에/ 말없이 맞아주던/ 그윽한 숲
이여// 한낱 고적(孤寂)이 태고(太古)의 하품처럼/ 스며들고/ 누구의 향
수(鄉愁)인 양/ 여름 풀숲에/ 가을벌레가 운다

「숲」 전문

해방 1주년 기념 시집으로 조선청년문학가협회에서 간행한 『날개』에 수록된 시이다. 여기에서 오영수는 연대기적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경험한다. 외롭고 쓸쓸한 한낱의 시간은 ‘태고’와 통하고 여름 풀숲에는 벌써 ‘가을벌레’가 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시 속의 ‘가을벌레’는 결코 향수를 느낄 수 없다. ‘향수’가 잃어버린 대상을 향한 ‘그리움’인 이상, 잃어버린 대상을 향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가을벌레’는 한철을 살다 가므로 기억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가을벌레’의 ‘울음’에서는 ‘향수’가 느껴진다. 이것이 오영수 자신의 감정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앞서 ‘태고의 하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향수’는 잃어버린 시공간으로서 ‘태고’를 향한다. 개체의 생성과 소멸이 아닌 ‘생명’ 자체의 지속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개체는 소멸한 개체의 기억을 소유할 수 있다. ‘생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름 풀숲’에서 우는 ‘가을벌레’는 과거의 기억, 곧 ‘옛이야기’를 기억하는 존재이기도 하다.³⁷⁾

「오뉘」 연작에서 보여준 ‘슬픈 이야기’와 ‘옛이야기’는 과거에 비롯한 이야기이며, 이것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복하자고 말하는 것은 직선적·분절적 시간관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영수는 처음부터 역사성을 초월한 원초적인 세계를 지향했다기보다, 자신의 실질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극

37) 후쿠오카 신이치가 내세우는 동적 평형으로서의 생명에서는 개체의 유지가 목적이 아니다. 생명 그 자체의 순환이야말로 생명의 목적이다. 후쿠오카 신이치, 김소연 옮김, 『동적평형』, 은행나무, 2010, 205-206쪽.

복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관통하는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오영수의 '옛이야기'에는 개별 존재의 '슬픔'과 '아픔'이 간직되어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것은 한반도를 지탱하는 보편적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4. 마무리

본고는 오영수의 시 작품 중에서 '고향'과 '여성'이라는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작품을 중심으로 그러한 대상의 형상화가 보여주는 의미를 가늠해 보았다. 오영수는 분명 소설가이지만 그의 문학 초기에는 시가 존재하고 있다. 그가 창작한 동요와 시에서 보여준 특징은 그가 소설가로서 보여준 작품과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점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향토적인 분위기와 소재, 서정적인 묘사와 함께 전달하는 메시지도 대체로 온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지점이야말로 오영수가 시와 소설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일관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영수는 이러한 시적 이미지와 메시지를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흔적과 주변에서 목격하는 삶의 모습에서 가져왔다고 보았다. 해방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삶과 그 속에서 경험하는 '가난'과 '이산'의 고통은 분명 오영수 자신은 물론이고 민족의 체험 속에 녹아 있다. 이에 오영수는 헤어진 가족과 떠나온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움'의 주변에는 가난한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암시하는 존재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미군정기의 가난과 고통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결합한 것이었다. 오영수는 자신의 시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가치 판단을 드러내기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간접적인 전달은

오영수가 원형적 세계를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안기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오영수는 가난한 시절의 ‘슬픈 이야기’와 ‘옛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자고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이들은 가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내달리려는 모든 이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는 과거의 모습은 저 멀리 시원적인 공간이 아니다. 우리 겨레가 한반도에서 경험한 모든 삶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그로써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순수하고도 원대한 꿈이었으리라 판단된다. 그것이 오영수가 창작한 해방기 시 작품의 의미 중 하나일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오영수, 『갯마을』(오영수 대표 소설 포켓북-1), 울주군·오영수문학관, 2016.
_____, 『황혼』(오영수 대표 소설 포켓북-8), 울주군·오영수문학관, 2017.
_____, 『낚시』(오영수 대표 소설 포켓북-10), 울주군·오영수문학관, 2017.

2. 단행본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11.
김아람, 『난민, 경계의 삶』, 역사비평사, 2023.
김호기,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나남출판, 1999.
문 영, 『변방의 수사학』, 작가시대, 2018.
민궁기, 『울산의 지명』, 도서출판누리, 2020.
이병길, 『영남알프스, 역사 문화의 길을 걷다』, 책과나무, 2018.
허 윤, 『남성성의 각본들』, 오월의봄, 2021.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23.
도린 매시, 정현주 옮김,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수전 벅모스, 김성호 옮김, 『헤겔, 아이티, 보편사』, 문학동네, 2012.
크리스토퍼 코흐, 박제윤 옮김, 『생명 그 자체의 감각』, 아르테, 2024.
후쿠오카 신이치, 김소연 옮김, 『동적평형』, 은행나무, 2010.

3. 논문

- 강정구, 「아메리카니즘과 성매매 여성-주요 전후소설을 중심으로」, 『우

- 리어문연구』 49집, 우리어문학회, 2014, 423-455쪽.
- 구수경, 「오영수 소설에 나타난 식물적 상상력과 순응의 미학」, 『현대소설연구』 4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89-113쪽.
- 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화』 제24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3, 165-200쪽.
- 김정호·이순옥, 「근대 어린이문학과 신고송의 동요」, 『음악과 현실』 제60호, 민족음악학회, 2020, 119-158쪽.
- 나보령, 「편집자 오영수-『현대문학』 편집장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8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3, 221-250쪽.
- 박태일, 「오영수의 광복기 미발굴 시 연구」, 『가라문화』 제26집, 경남대학교박물관 가라문화연구소, 2014, 29-62쪽.
- 오태호, 「오영수 소설에 나타난 서정적 리얼리즘 연구」, 『국제어문』 제48집, 국제어문학회, 2010, 155-182쪽.
- 이순옥, 「광복기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형성과 창작 기반」, 『석당논총』 5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97-128쪽.
- 정용호, 「오영수의 동요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 양상과 의미-『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수록 동요 작품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34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4, 151-183쪽.

4. 기타자료

오영수문학관, https://www.ucf.or.kr:478/oys/about_02.html#section_con
PNU로컬리티아카이브,

<https://bpa.localityarchives.org/collections/show/19>

<꽃을 숨긴 산 화장산 [KBS울산 보물창고-울산실록]>, 《울산시대》
유튜브채널, 2025. 3. 11.

<https://www.youtube.com/watch?v=ODBYtriU5Pc>

<Abstract>

The Meaning of 'Hometown' and 'Nostalgia' in Oh
Young-soo's Poetry of the Liberation Period
-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of 'Old Tales'-

Jeong, Yong-Ho*

This paper incorporates prior research on Oh Young-soo's poetry from the liberation period and examines how the themes of 'hometown' and 'nostalgia' found within them are connected to the realities of the time. The issues of unfreedom and poverty, which persisted eve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remained unresolved even during Oh Young-soo's tenure at Gyeongnam Public Girls' High School. It is believed that this reality influenced his poetic creation and shaped the themes of his poems.

First, Oh Young-soo drew upon the emotion of 'nostalgia' from his experiences of having to leave his hometown, wheth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The place names and landscapes specifically mentioned in his poems are not only connected to his childhood experiences but also represent traces of the 'poverty' commonly witnessed around the liberation period. It is evident that Oh Young-soo utilized these aspects as poetic material. It was confirmed that 'nostalgia' also conveyed a message to endure and accept reality.

Subsequently, in poems featuring the sibling relationship as a motif, Oh Young-soo affirms the past, expressed as 'sad stories' and 'old

* University of Ulsan.

tales.’ This is also connected to the scene in a work containing a message for a graduating female student, where she is told to find her ‘old plumage.’ Oh Young-soo’s repeated references to stories and memories of the past are aligned with the affirmation of the ‘Nakdong River,’ which penetrates the past and presen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orest,’ as a space open toward the primeval era, also demonstrates Oh Young-soo’s perceptual patterns that affirms the value of the past spanning the present.

The message in Oh Young-soo’s poetry to accept the present while enduring ‘nostalgia,’ and the suggestion to remember ‘old stories’ as ‘sad tales,’ contain the potential to expan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his novels, such as the affirmation of a pre-modern, archetypal world and the development of narratives accompanied by stories (folktales).

Key Words: Oh Young-Soo, Poem, Liberation Period, Hometown,
Nostalgia, Old tales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28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17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19일